

'고려대장경 이체자전' 올내 완간

장경연구소 세계최초... 대장경 이체자 4만여자

한문권 장경연구 기초문헌 '세계불교학계 관심' 이체자 正字 찾아 자음·부수·획순별 재분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이하 장경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고려(한국)·한문(중국)·신수(일본) 대장경 등 한문권 대장경 연구의 기초 문헌이 될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을 만들고 있어 세계불교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려대장경 이체자전(異體字典)'은 지난해 12월 고려대장경 전산본을 1차 교정한 장경연구소가 1차 교정한 자료의 전자사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이규갑교수(연세대 중문)를 비롯 중문학(中文學)을 전공한 7명의 석·박사들은 지난해 장경연구소가 편인(1차 이체자전)을 토대로 이체자를 새롭게 찾아 자음·부수·획순 등으로 재분류하고 있다. 대장경을 연구하는 불교학자라면 누구나 웬만한 한문사전에서조차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이체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은 한문권 대장경 연구의 기초를 다질 참으로 문헌으로서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대장경 학(學)'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규갑 교수의 모습

이체자란 말 그대로 '몸이 다른 글자'. 형(形)·음(音)·의(義)로 구성된 한자의 이체자란 음(音)·의(義) 등이 같은 동음·동의어이지만 형(形)이 다른 것. 고려대장경에서 가장 많은 이체자를 가지고 있는 한자는 '발(發)'자. 이 한자는 무려 59종의 이체자로 변형돼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경연구소는 올해말까지 완성될 이체자전을 전산본 고려대장경의 전자사전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장경에서 사용된 이체자의 정자(正字), 대장경 출처, 용례 등을 추가해 발간한다. 이규갑교수는 "미국 '버리리 등 세계 유수 대학들이 벌써부터 '이체자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은 대장경 연구 뿐만 아니라 금석학·국문학·한문학 등 인접 한문의 연구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을 위해 중문학자들이 고려대장경 이체자 색인·분류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대장경 통합해제' 전산인덱스 작업도

이와함께 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각종 경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한 '고려대장경 통합 해제'를 전산본 고려대장경의 보안 자료로 추가할 계획이다.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경전 수는 총 1천 514종. 장경연구소는 이 해제를 전산본 고려대장경의 목차로 이용할 계획이다. 정승석·김희성교수(동국대 인도철학) 등이 마무리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통합 해제'는 고려대장경에 게재된 모든 경전을 색인, 각 경전의 요지(要旨)·대장경 출처·경전 목차 등으로 구성됐다. 또 고려대장경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한자를 표기할 수 있는 4바이트도 체계의 프로그램 '고려워드'를 올해 안에 개발할 계획이다. 연구소측은 '고려워드'가 개발되면 불교학은 물론 국학·한문학 연구와 진흥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Location: http://www.numata.org/

What's New | What's Cool | Handbook | Not Search | Not Directory | Updates

The Numata Center
Non-profit Publisher of the Buddhist Canon Translation Series

Numata Center
2720 Warren St
Berkeley, CA 94704 USA
Tel: 510.841.4129 or 510.841.4153
Fax: 510.845.3409
email: numata@slip.net

Welcome to our Home Page
The BDE Tripitaka Translation Project
For forty years after his enlightenment under the Bodhi Tree, Shakyamuni Buddha taught his followers the path leading to enlightenment.

Document Date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전도협회(Bukkyo Dendo Kyokai, 이하 BDK)는 일본의 미즈토요사(社)의 예한 누마타(Yehan Numata, 1897~1994)에 의해 1965년 12월 설립된 불교 진흥재단으로 특정 불교 종파에 치우치지 않는 통불교적인 성격의 재단이다.

1984년 BDK의 예한 누마타의 후원 아래 누마타 센터가 설립되어 이 곳에서 중심이 되어 일본 신수대장경을 영역하고 있다. 누마타 센터의 불교경전번역위원회는 번역할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경전 139종을 결정하고 2015년까지 108권의 영역 출판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번역 사업에 참가한 하나야마(Hanayama)교수는 "모든 경전을 전부 번역하는데는 1백년 이상 걸릴지도 모르지만 중국어는 번역 경전이 1천여권으로 쌓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BDK는 불교경전을 영역하는 것 외에도 세계 도처에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불교 학자들이 일본에 있는 동안의 각종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세계 각국에 사찰을 건축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DK는 《The Teaching of Buddha》라는 영어판 불교경전도 출간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이 책은 일본 불교학자들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편집된 것으로 방대한 불교 경전 중 불교사상의 정수들만 뽑아서 모아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웬만한 호텔에 가면 있는 성경 크기의 불교경전이 바로 BDK에서 불교를 세계 도처에 전파하기 위해 편찬해서 기증한 것이다.

이 사이트는 ▲팔리어·방어·영어로 색인된 139종 경전 ▲산스크리트어 전산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경대 표어연구회 등 10여곳의 학술단체와의 연동서비스도 제공한다.

http://www.slip.net/~numata

간단명칭도 포함...인간·문화·정신·내·외

불교계 신흥종교 7계열 55종단

원광대 '실태보고서' 일본계 불교 교세늘어 국내 신흥종교 332종

한국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신생종단은 총 55종이며, 대부분 종권다툼과 재산관리문제로 창종된 것으로 분석됐다.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소장 김홍철)가 문화체육부 지원을 받아 최근 편인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된 1962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생겨난 신생종단은 법화계(13종), 선계(6종), 정토계(8종), 미륵계(8종), 화엄계(4종), 밀교계(5종), 기타계(11종) 등 7계열 55종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이들 신생종단들의 창종 배경은 △전통종단의 분규 △자생종단 △특정교단의 불교화 △의례종단의 한국화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중인 신생종교는 34계열 3백22개 교단. 이중 자생적인 신생종교가 12계열 1백33개 교단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12계열 1백26개 교파, 외래계 신종교 3계열 35개 교단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래계 신생종교로 파악된 총 35개 종교종 SG(한국불교회라는 이름의 창가학회, 일련정종 등) 일본계 불교가 상당한 교세를

○불교계 신생종단

계열	종단수	주요 종단
법화계	13	관음종, 법화종, 천태종
선계	6	달마종, 조동종, 법륜종
정토계	8	미타종, 정토종
미륵계	8	교화종, 법상종, 미륵종
화엄계	4	원효종, 화엄종, 총화종
밀교계	5	진각종, 진언종, 총지종
기타	11	대각종, 삼론종, 법왕종

●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된 1962년 이후 창립된 불교계 신생종단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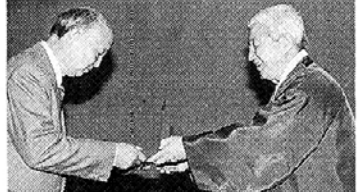
불교를 조사한 양은용교수(원광대 중앙종교학과)는 "일본불교의 교세가 늘어나는 이유에는 국내 종교계에서 자생종교의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고 건강·수련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종교들이 급증하는 추세와 맞물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수련 등을 통해 건강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기업체 경영, 공장운영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종교의 출현도 예전과는 달랐다. 대우, 천주회 대순진리회의 급성장이 이같은 경향을 반영한다.

종교문제연구소 김홍철소장은 "이번 조사는 제도권 밖의 군소교단도 일일이 현지 확인을 거쳐 실태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건박사 삼문화학회 공로상

김지건박사(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는 2일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쓴 원효대사전(傳)을 역주한 '조소앙선 신라국원효대사전 병서'로 삼문화학회(회장 조만제)의 학술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지건박사(사진 왼쪽)가 2일 삼문화학회 조만제회장에 학술공로상을 받고 있다.

김박사는 "소앙의 원효전은 <속고승전>(삼국유사) 등 기존의 원효전기들이 사료만을 나열하는 평면적 서술인데 반해 원효스님의 마음의 온기(溫氣)와 원효적 사상이 그대로 나타난 전기"라고 평가했다.

삼문화회는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일제의 불령등을 정치·경제·교육 등의 균등으로 해쳐나가자고 주장한데서 비롯된 삼국주의를 연구하는 학술단체.

한국불교연구(위원장 정병조)는 제119회 한국불교연구원(위원장 정병조)은 제119회

학술단신

불교사상강좌를 연다. 동국대 부총장 정병조박사가 맡은 이번 강좌는 근본·대승·인도·중국·한국불교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2월10~14일까지 5일간, 또 김상현교수(동국대 사학)가 '원효연구'를 주제로 3월5~21일까지 원효학당에서 불교강좌를 갖는다. (02)3411-6167

'종교교육학' 3·4집 발간

종교교육학회(회장 박선영)는 <종교교육학> 3·4 합본집을 발간했다. 이번 합본집에는 '일본·태국·미국·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종교교육'(김세균 외 3명), '한국의 중등학교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김귀성), '심미교육과 종교·불교적 심미교육에 관한 서론'(김대열), '불교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적 기법'(이창숙), '한국 종교의 인간관과 인격 교육의 가치요소'(박선영) 등 논문 14편이 실렸다. (02)260-3385

승가대 '산스크리트어 연구' 강좌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연구원이 98년도 '한역 및 산스크리트어 불전 연구' 강좌를 연다.

월일석보(정진원), 구사론(허경우), 화엄현담(해남스님), 성유시론(송운우), 선요·철요(중봉스님), 산스크리트어 불전연구(김령) 등이 마련된 이번 강좌는 3월20일부터 시작된다. (02)953-2876

"북한·베트남등 종교자유 침해" 미국무부 '세계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미국 국무부 부설 해외종교자유위원회는 최근 세계의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 베트남 북반부 등 국가에서 국민의 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학계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공산권 국가에서 종교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 베트남과 중국을 지목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는 정부에 등록된 종교기관의 회원만이 유자문위원회는 최근 세계의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 베트남 북반부 등 국가에서 국민의 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올브라이트 장관은 "미국은 중국 등의 종교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는 해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께 3cm의 황토매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까? 맥반석 돌침대보료가 69만원이라는게?

올겨울엔 맥반석 돌침대로 호도하세요!
돌침대는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159만원 MS-220	167만원 MS-210	187만원 MS-201	197만원 MS-370

돌침대 전문생산업체 (주)한국엠에스피는 IMF시대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없애고 돌침대가격의 가파르다를 이룩한 정직한 기업입니다.

비취옥방 전문대리점 모집

창업가이드	개설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황에도 돈벌수 있다. —투자액의 10%이상 벌어야 된다 ● 목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다. —재고 100% 반품가능 ● 점주는 관리만 하면 된다. —영업판매 관련 100%본사지원 ● 본사가 든든하다. —세계 최대 천연옥 광산 국내 독점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품목 —센스톤, 청매반석, 비취옥방은돌침대, 천연옥관련상품 ● 개설지역 —전국시, 군, 구 (지역선민보장) ● 담보 5,000만원 이상 매장 보유가능자 (월수익 500보장) ● A/S보장 및 본사에서 전국 지역직접배송

SUNSTONE 청매반석은돌침대 TV·라디오 광고 중

(株)韓國 MSP
Mina Stone Paradise Co., Ltd.

● 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06-8 ● 전화 3442-0940 (선) FAX 3442-0343
● 영남지사 대구시 서구 547-2541 (선) A/S 547-2549 ● 경기지사 고양시 948-8881 (선) FAX 948-8866 ● 충청지사 대전시 331-1841 (선) 331-1220 ● 3월 21일 전 http://www.stonebed.co.kr

상담문의 (02)547-2547